

Ciba-Raisio, 제지약품 사업 합병

상호보완 및 시장확대 위해 신속통합 ... 핀란드에 새로운 기반 마련

Ciba Specialty Chemicals이 6월4일 EU의 합병 관계당국의 승인을 거쳐 Raisio Chemicals와의 합병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Ciba와 Raisio의 합병으로 제지약품 분야의 최고의 Chemicals 공급기업 탄생하게 됐다.

Ciba의 Armin Meyer 회장은 “합병을 무사히 끝내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제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합병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조속히 누릴 계획이다. 상호 보완적인 제품의 준비와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R&D 능력은 제지산업 분야 최고의 공급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Ciba Specialty Chemicals는 Raisio Chemicals와의 통합으로 세계 제지산업에 공급량을 늘리면서 상당량의 상호판매와 시장확대의 기회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Turku에 있는 Raisio Chemicals Technology Campus를 포함한 연구개발 기관에서 새롭고 독특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세계 제지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Ciba의 위치를 돈독히 하기 위해 핀란드에 새로운 운영허브를 형성할 예정이다.

Ciba 관계자는 “2003년 422만유로(약 650만SF)의 매출을 기록한 Raisio Chemicals과의 통합으로 제지 및 수처리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그룹의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07>